

손흥민 '토틀넘과 1년 더'

토틀넘 구단 '1년 연장 옵션' 발동

술한 이적설 딛고 2026년 여름까지 동행 확정 "역사 현장 함께 한 현 시대 토틀넘 위대한 선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틀넘이 '캡틴' 손흥민과의 계약을 1년 연장하겠다고 마침내 발표했다.

이로써 손흥민과 토틀넘은 2026년까지 동행을 이어간다.

토틀넘 구단은 7일 홈페이지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손흥민에 대한 계약 연장 옵션을 행사한다"면서 "계약은 이제 2026년 여름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독일 무대에서 활약하다가 2015년 8월 토틀넘에 입단하며 EPL에 진출한 손흥민은 이번 계약 기간을 포함하면 11년 동안 토틀넘 유니폼을 입게 된다.

토틀넘 소속으로 통산 공식전 431경기에 출전해 169골을 넣은 손흥

민은 구단 통산 득점 4위에 오를 정도로 토틀넘에서 굵직한 족적을 남기고 있다.

토틀넘에서 뛰는 동안 2021-2022 시즌 EPL 공중 득점왕(23골), 2020년 국제축구연맹(FIFA) 푸슈카시상 등의 영예를 안으며 유럽 축구 무대에서 한국은 물론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수로 우뚝 섰다. EPL 득점왕과 푸슈카시상 모두 아시아 선수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대기록이다.

세계 최고의 프로축구 리그로 꼽히는 EPL에서 2016-2017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했고, 토틀넘 소속 선수는 역대 가장 많은 도움(68개)을 올리기도 했다.

한국 국가대표팀의 주장으로 중심을 잡던 그는 2023년 8월부터는 소속팀 토틀넘에서도 주장 완장을 차면서 구단 '레전드' 반열에 들었다.

손흥민 축이 이미 바르셀로나와 접촉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밖에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상 스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페네르바체, 갈라타사라이(이상 튀르키예) 등이 다음 행선지 후보로 거론됐으나 일단 손흥민은 내년 여름까지는 토틀넘 선수로 계속 그라운드를 누비게 됐다.

이날 1년 연장 옵션 행사를 발표하며 토틀넘은 "손흥민은 우리와 함께하는 동안 '글로벌 스타'가 됐고, 현 시대 토틀넘의 위대한 선수가 됐다"고 평가했다.

2019년 4월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EPL 경기에서 현재 토틀넘 홈구장인 토틀넘 핫스퍼 스타디움 '개장 1호골' 주인공이 되는 등 "여러 상징적인 골을 넣으며 우리의 역사에 자리 잡았다"고 치켜세웠다.

형 이적을 노리고 있다"며 그 대상 중 하나로 손흥민을 언급하기도 했다.

손흥민 축이 이미 바르셀로나와 접촉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밖에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상 스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페네르바체, 갈라타사라이(이상 튀르키예) 등이 다음 행선지 후보로 거론됐으나 일단 손흥민은 내년 여름까지는 토틀넘 선수로 계속 그라운드를 누비게 됐다.

이날 1년 연장 옵션 행사를 발표하며 토틀넘은 "손흥민은 우리와 함께하는 동안 '글로벌 스타'가 됐고, 현 시대 토틀넘의 위대한 선수가 됐다"고 평가했다.

2019년 4월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EPL 경기에서 현재 토틀넘 홈구장인 토틀넘 핫스퍼 스타디움 '개장 1호골' 주인공이 되는 등 "여러 상징적인 골을 넣으며 우리의 역사에 자리 잡았다"고 치켜세웠다.

/연합뉴스

"토틀넘은 내가 사랑하고 모두가 꿈꾸는 팀"

계약 연장한 손흥민 "주장은 많은 책임감이 따른다"

토틀넘 핫스퍼와 1년 계약 연장에 합의한 '캡틴' 손흥민(32)이 "지난 10년과 앞으로 보낼 1년이 매우 자랑스럽다"는 소감을 전했다.

손흥민은 8일(한국시간) 토틀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를 통해 "토틀넘을 사랑한다. 토틀넘은 모두가 뛰기를 꿈꾸는 클럽"이라며 남다른 애정을 과시했다.

이번 계약 연장으로 2015년 8월 토틀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11년 동안 토틀넘 유니폼을 입게 됐

다.

손흥민은 이에 대해 "명명히 대단한 일"이라며 계약 연장 소감을 전했다.

그는 "거의 10년 동안 토틀넘과 함께했고, 앞으로 1년을 더 있게 됐다. 나에게는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나는 토틀넘을 사랑한다"고 강조했다.

토틀넘 사랑이 남다른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책임감도 드러냈다.

그는 "알다시피 토틀넘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모두가 뛰고 싶어

하는 팀이다. 그래서 주장은 많은 책임감이 따른다"며 "주장은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고 항상 일을 해야만 한다. 스스로 힘든 일을 자처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최근 팀의 부진에 대해서도 "이런 힘든 시기는 언제나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땀을 흘리고 점수를 다시 해야 할 때다. 다시 올라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쁜 시절이 있으면 항상 좋은 시절이 따라오게 마련"이라며 위기 극복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연합뉴스



다저스 김혜성 영입 평가 'B+' 타율 0.270·9홈런·27도루 예상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의 김혜성 영입이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으로부터 평점 'B+'를 받았다.

김혜성은 지난 4일 다저스와 3+2년 최대 2천200만달러에 계약하고 미국 진출에 성공했다.

ESPN은 먼저 이름이 비슷한 김하성과 다른 선수라는 점을 설명하며 "김혜성의 수비와 주루 능력은 김하성과 비슷하지만, 파워는 다소 약한 편"이라고 소개했다.

이 매체는 "김혜성의 수비는 골드 글러브를 받은 김하성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수준급이고 다재다능하다"며 "타격이 받쳐준다면 유틸리티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외야수 이정후와도 비교했다.

ESPN은 "이정후와 김혜성은 키움에서 5시즌을 함께 뛰었다"며 "해당 기간 이정후가 타율 0.340, 홈런 57개, 도루 46개를 기록했고, 김혜성은 타율 0.306, 홈런 21개, 도루 150개의 성적을 냈다"고 설명했다.

김혜성의 2025시즌 성적에 대해서는 '클레이대본포트닷컴'이라는 매체의 전망을 인용해 타율 0.270(662타수 152안타), 출루율 0.337, 장타율 0.388에 도루 27개, 홈런 9개를 예상했다. /연합뉴스

광주시체육회, 조선대 운동부 동계합동훈련 격려 방문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을 비롯한 광주시체육회 임직원들이 8일 조선대 체육관을 방문, 선수들을 격려한 후 단체 기념촬영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 체육 버팀목 자부심으로 올사년 빛나는 성과 기대"

광주시체육회가 8일 조선대 체육관을 방문해 동계 합동훈련 중인 선수들을 격려했다.

조선대는 육상 등 14개 종목에 200여명의 선수를 육성하고 있으며, 지난 6일부터 3일간 동계 합동훈련에 전종목선수가 참가해 갖대봉 러닝, 계단 돌래 인터벌 등 체력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조선대 태권도 김혜규가 광주선수단에 첫 번째 금메달을 선사했고, 축구팀은 은메달, 배구팀은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좋은 성적을 달성했다.

이러한 저력으로 조선대 선수들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학 기간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그동안 광주시체육회는 조선대 운동부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 육성비를 지원해왔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훈련에 열심인 선수들이 고맙고, 2025년 올사년에는 강한 의지로 더욱더 빛나는 성과가 있기를 응원하며, 훈련기간 동안 부상 없이 안전하게 훈련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종기자

광주FC, 정통 스트라이커 박인혁 영입

제공권 장악...공격력 업그레이드

프로축구 광주FC가 박인혁(20)을 영입하며 공격력을 강화했다.

광주는 8일 "대전, 전남 등에서 활약한 공격수 박인혁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영동포공고-경희대 출신인 박인혁은 2014년 U리그 챔피언십 3위, 2015년 춘계연맹전 우승을 이끌었고, 이를 바탕으로 독일 분데스리가 호펜하임에 입단하며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유럽 생활을 이어가던 박인혁은 2018년 대전시시즌에 입단하며 한국 무대에 첫 발을 내디뎠다.

박인혁은 2018시즌 승강 플레이오프 포함 33경기 7골 3도움으로 두 자릿수 공격포인트를 만들어냈다.

2022년 전남으로 이적해 38경기 7골을 기록하는 등 K리그 통산 138경기 24골 6도움을 기록 중이다.

이후 군복무를 위해 K4리그 소속인 양 해피니스, 당진시민축구단 등에서 경력을 이어간 박인혁은 2024시즌 K4리그 16경기 15골 3도움을 폭발시키며 아직 건재함을 증명했다.



올 시즌 광주 유니폼을 입은 박인혁. <광주FC 제공>

박인혁은 188cm·80kg의 탄탄한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높은 타점과 제공권이 우수하며 뒷공간 침투와 동료들을 활용한 연계 플레이가 장점인 정통 스트라이커다.

박인혁은 "꿈에 그리던 K리그 무대를 밟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 믿고 기회를 준 구단에게 감사하다"며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가짐으로 간절하게 임할 것이고 존재 이유를 증명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단 소감을 전했다. /박희종기자



원덤 클라크(왼쪽)와 타이거 우즈가 7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가든스의 소파이센터에서 열린 투모로우골프리그(TGL) 개막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우즈 '이름값' 보너스 144억원

5개 대회만 뛰고도 작년 PGA 선수 영향력 1위 올라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지난해 5개 대회에 나와 컷 통과는 한 번 밖에 하지 못했지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선수 영향력 프로그램(PIP) 1위를 차지했다.

미국 골프채널은 7일 "우즈가 지난해 11월 선수들에게 통보된 2024시즌 PGA 투어 PIP에서 1위에 올랐다"며 "1위 선수에게 주는 보너스 1천만 달러(약 144억 6천만원)를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PIP는 PGA 투어가 2021년 만든 선수 영향력 지수다. 성적과는 무관하게 인터넷 검색량, 글로벌 미디어 노출 정도, 소셜 미디어 언급 빈도 등을 수치로 환산해 순위를 정한다.

우즈는 2021년과 2022년에 1위를 차지

했고, 지난해에는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에 이어 2위였다.

우즈는 2024시즌 4대 메이저 대회 외에는 2월 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까지 5개 대회에만 출전했고, 이 가운데 컷을 통과한 것은 4월 마스터스가 유일했다.

12월에는 이벤트 대회인 PNC 챔피언십에 아들 찰리와 함께 나와 준우승했다.

남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가 PIP 2위에 올라 800만 달러 보너스를 받게 됐다.

3위는 지난해 PIP 1위였던 매길로이, 4위는 지난해 메이저 대회에서 두 차례 우승한 잭니 쇼플리(미국)가 차지했다. /연합뉴스

스포츠산업 매출액 81조원 돌파

종사자수는 46만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2023년 기준 스포츠 산업조사 결과 국내 스포츠 산업 매출액은 81조 320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체부가 8일 발표한 2023년 스포츠 산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스포츠 산업 매출액은 2022년 78조 1천600억원에서 3.8% 증가한 81조 32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12만6천186개 기업 중 1만4천6개 표본을 대상으로 방문과 팩스, 전자우편 조사를 병행해 실시했다.

스포츠산업 종사자 수는 45만8천명으로 2022년 44만명에 비해 4.1% 늘었

고, 사업체 수도 12만6천186개로 전년 대비 4.6%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스포츠용품업 매출이 4.7% 증가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스포츠서비스업 3.9%, 스포츠 시설업 2.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또 용품업 내에서는 스포츠 관련 온라인 판매가 9.7% 증가한 가운데 스포츠 신발 도매업 9.3%, 운동 및 경기 용구 소매업 6.3% 등 유통 분야의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서비스업에서는 스포츠 에이전트업이 20.0%나 늘었고, 스포츠 경기업(프로야구·프로축구 등) 역시 20.6% 성장했다. 시설업의 경우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테니스장·탁구장 등)이 17.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